

# 지방 중소도시 유형별 1인 가구 특성연구

안정근\* · 김동성\*\* · 박철홍\*\*\*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 in Local Small and Medium Cities

Jung-Geun Ahn\*, Dong-Sung Kim\*\*, Cheol-Heung Park\*\*\*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 경제성장에 힘입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주민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미혼 여성의 경제적 자립, 청년층의 만혼(晩婚), 중년층의 이혼, 고령층의 사별 증가 등으로 전체 가구의 29%가 1인 가구인 시대로 되었다.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치중되어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방 중소도시는 도시특성에 따라 성장 정채도시, 산업 선도도시, 지역 거점도시, 인구 유출도시 등으로 구분되며 도시 유형에 따라 1인 가구특성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정채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30-40대 연령대가 적으며 자가인 단독주택에서 방 3개 이상에 거주하는 장년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년층 위주의 장기임대주택 및 셰어하우스 등의 주택공급과 함께 사회적 교류를 위한 단지형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 산업 선도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모든 연령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아파트 거주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행복주택 등 청년층 주택공급과 함께 기존주택에 대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청·장년층 1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대처하여야겠다. 지역 거점도시의 1인 가구는 대졸 학력에 20대 이하의 미혼 가구가 많고 월세주택에서 방 1개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을 위한 소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분양주택과 전월세 주택공급을 통해 청년층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어야겠다. 인구 유출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초졸 학력에 사별한 가구가 많고 자가인 단독주택에서 방 4개 이상에 거주하는 노령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복지주택 등 노령층 위주의 단지형 주택공급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분산된 주택거주 형태를 집단적 거주형태로 주거공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지방 중소도시, 1인 가구, 주거특성, 주택정책

**Abstract:** In modern society, the number of one-person households is increasing significantly. In particular, one-person households have rapidly increased around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by factor and cluster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are applied to the characteristics

\*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교수(주저자, 교신저자: jgahn@gnu.ac.kr)

\*\*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공동저자: kts8023@naver.com)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 처장(공동저자: pch@lh.or.kr)

of one-person household in different local cities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types of c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s. As a result of the study,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re classified into growth stagnation cities, industrial leading cities, regional base cities, and population outflow cities. It is also found that there are several different types of local cit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s. The growth stagnation city is a city where the regional economy is revitalized due to the development of regional industries in the past. One-person households have a small age group in their 30s and 40s, which are the basis of industrial activities. They have a high proportion of older generation living in more than three rooms in their homes. It is necessary to supply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and share houses for older generation. The leading city of the industry is a city where the local economy is revitalized as workers are concentrated. One-person households are evenly distributed among all age groups, and the apartment occupancy rate is the highest compared to other typ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happy housing for youth generation and reconstruction or renovation housing of manhood generation. The regional base city leads the regional base function and the regional economy, but it has reduced workers. Many of one-person households are younger than 30 years old and college educated. They are also high rate of unmarried and live at one room as rental houses. It is needed to expand the supply of small houses such as apartments, officetels and rented houses for youth generation. The population outflow city has a slow local economy and a rural residential environment. It is found that the households of one-person households have high rate of bereavement and the age. They live more than four rooms in single-family home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rovide welfare housing but also to create a sound residential environment where cultural exchange is possible.

**Key Words:** Local Medium and Small City, One-Person Household, Urban Character, Housing Policy

## 1.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국가 경제성장에 힘입어 사회적·경제적으로 주민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미혼 여성의 경제적 자립, 청년층의 만혼(晩婚), 중년층의 이혼, 고령층의 사별 증가 등으로 다인(多人) 가구 시대에서 1인 가구 시대로 전환되었다.

통계청 국가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1인 가구는 5,848,594가구이며,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15.5%에서 2019년 29.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30년에는 전체 가구의 33.8%가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통계청, 2019).

국내 주택수요가 다인 가구에서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되어 정부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차별적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

구를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등에 대한 주택정책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치중되어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적합한 주택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차별적 주택정책을 위해 지방 중소도시의 사회적·경제적·물리적 특성에 근거한 1인 가구 특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선행연구 고찰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는 크게 주거특성 연구, 주거복지 연구, 주택공급 연구로 구분된다. 1인 가구 주거특성 연구로 이재순(2012)은 1인 가구를 청년층과 노

령층으로 구분하고 청년층은 오피스텔 거주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령층은 아파트 거주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층의 70~80% 이상이 도심지역과 고시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밝혔다. 조민희(2013)는 1인 가구를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지역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 청·장년층 1인 가구는 교육수준이 높으며 미혼비중이 높고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밝혔다. 농촌지역의 노령층 1인 가구는 교육수준이 낮으며 사별 비중이 높고 자가인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음을 밝혔다. 김태주 외(2015)는 농어촌지역의 1인 가구특성 분석을 통해 산업형 농어촌지역에서는 청·장년층 및 노령층 1인 가구를 위한 생활주택 공급이 필요하며 전통형 농어촌지역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김보경(2017)은 1인 가구를 대학생과 직장인으로 분류하고 대학생은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직장인은 주택가격이 낮은 곳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밝혔다.

한편 1인 가구 주거복지 연구로 김옥연 외(2009)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해 주거급여 대상 확대, 주거비 세금공제, 대체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의 지원방안이 요구되며 주택정책에서 소외된 1인 가구를 포함시켜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세연 외(2014)는 1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득계층 및 연령대별로 차별화 된 정책적 관심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치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명(2017)은 저소득 1인 가구 주거향상을 위해 국민주택 규모기준 변경,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청약제도 개선, 주거비 지원, 공동거주주택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 재정비와 주택공급체계 개편을 주장하였다. 박미선 외(2017)는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대학가 인근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셰어하우스 공급, 최저주거기준 재정립, 전세자금 한시적 무이자 대출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1인 가구 주택공급 연구로 박미선 외(2018)는 1

인 가구 증가에 따라 1인 가구 주거비 지출을 고려한 부담가능 주택공급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신현진(2018)은 1인 가구의 사회적·경제적 특성에 근거하여 1인 가구 고령자 주택공급 및 셰어하우스 공급과 함께 다양한 1인 가구 주거상품 활성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김영정 외(2019)는 1인 가구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동체주거 홍보 강화, 공동체 규약 제정, 공동체주거 코디네이터 양성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순희(2019)는 미국의 1인 가구 관련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미국은 공공임대주택공급, 임대료 할인,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과 함께 정부와 민간봉사자간 유기적 협력 중심의 돌봄정책, 세금경감 과세정책을 통해 1인 가구 노인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택공급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에서의 선행연구는 주로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주거특성 및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 1인 가구특성을 분석하여 선행연구와 차별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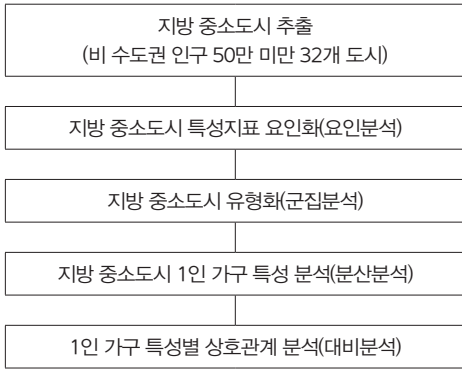
### 3. 연구방법

지방 중소도시의 1인 가구 특성분석은 <그림 1>과 같이 1)지방 중소도시 추출, 2)지방 중소도시 특성지표 요인화, 3)지방 중소도시 유형화, 4)중소도시 유형별 1인 가구 특성분석, 6)1인 가구 특성별 상호관계 분석과정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의 유형별 1인 가구특성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 지방 중소도시는 <표 1>과 같이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지방 중소도시<sup>1)</sup> 32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방 중소도시의 1인 가구특성은 도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표 2>와 같이 중소도시의 사회적·경제적·물리적 특성을 대표하는 지표를 요인분석<sup>2)</sup>과 군집분석<sup>3)</sup>을 통해 중소도시들을 유형화하였다.

요인분석은 지방 중소도시 특성을 대표하는 다양한 지표들의 상호 상관관계에 근거해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림 1〉 지방 중소도시 1인 가구 특성 분석방법

〈표 1〉 지방 중소도시 현황

구분	도시명
지방 중소도시 (32개)	춘천, 강릉, 원주, 제천, 충주, 보령, 공주, 논산, 서산, 당진, 아산, 정읍, 군산, 익산,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상주, 영천, 영주, 김천, 안동, 경주, 경산, 구미, 밀양, 사천, 통영, 거제, 양산, 진주

자료: 전국 도시인구 자료, 통계청(2019)

요인 추출은 Eigen 값(적재값)이 1.0 이상을 대상으로 직각회전 방식 중 Varimax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지표들 간의 분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요인을 첫 번째로 추출하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요인을 추출하는 주성분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요인분석에 의해 추출된 요인들은 군집분석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들을 유형화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군집 중심값이 양(+)의 부호가 나타나면 해당 요인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군집이며 음(-)의 부호가 나타나면 해당 요인에 대해 낮은 비중을 나타내는 군집이다.

지방 중소도시 유형별 1인 가구 특성은 〈표 3〉과 같이 1인 가구 특성 및 중소도시 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표 4〉와 같은 1인 가구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산분석<sup>4)</sup>을 통해 파악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는 식(1)의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모델에 근거하여 유의수준이 0.05를 초과하면 독립변수는 종속변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2〉 지방 중소도시 특성 지표

특성	부문	지표
사회적	인구구성	인구수 학생수(교원 1인당) 1인 가구 비율
	지역 현황	지자체 공무원수(인구 천명당) 출산율
	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수(인구 십만명당) 의료기관병상수(인구 천명당) 사회복지시설수(인구 십만명당)
경제적	지방재정	재정자립도 복지예산율 고용율 경제활동 참가율
	교통수단	자동차등록대수(1인당)
	기업수	총사업체수 제조업체수
물리적	기반시설	도로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도시공원 면적(m) 도시공원 비율
	주택유형	단독주택 비율 공동주택 비율
	주택점유	전세가구 비율 월세가구 비율
	주택노후	노후주택 비율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제별통계, 통계청(2019)

$$X_{ij} = \mu + A_i + B_j + (AB)_{ij} + \epsilon_{ijk} \quad \text{식(1)}$$

$$i=1, 2, \dots, a$$

$$j=1, 2, \dots, b$$

$$k=1, 2, \dots, n$$

$X_{ij}$ : 중소도시 유형 특성 및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1인 가구 비율

$\mu$ : 전체평균

$A_i$ : 중소도시 유형 영향

$B_j$ : 1인 가구 특성 영향

$(AB)_{ij}$ : 중소도시 유형과 1인 가구 특성의 상호작용 영향

$\epsilon_{ijk}$ : 오차

〈표 3〉 지방도시 1인 가구특성 지표

특성	지표
연령분포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혼인상태	미혼 결혼 사별 이혼
주택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주택점유	자가 전세 월세 기타
교육수준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기타
사용방수	1개 2개 3개 4개 이상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제별통계, 통계청(2019)

〈표 4〉 분산분석에 따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구분	세부 구분	1인 가구 비율
중소도시 특성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1인 가구 연령분포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인 가구 혼인상태	미혼, 결혼, 사별, 이혼	
1인 가구 주택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1인 가구 주택점유	자가, 전세, 월세, 기타	
1인 가구 교육수준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 기타	
1인 가구 사용방수	1개, 2개, 3개, 4개 이상	

1인 가구비율 = f(중소도시 유형, 1인 가구특성)

식(2)

위의 식(2)에 의해 종속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도출 후 대조분석(Contrast Test)을 이용하여 독립변수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 4. 지방 중소도시 특성분석

지방 중소도시의 1인 가구특성은 도시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지방 중소도시의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지표에 대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를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지방 중소도시를 유형화하기 위한 중소도시의 사회적·경제적·물리적 특성 지표들에 대한 요인분석은 〈표 5〉와 같이 VARIMAX<sup>2)</sup> 방법으로 9번 반복하여 6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들 요인군들은 지방 중소도시 특성에 대해 81%를 설명한다. 요인 1의 주요지표는 제조업체수, 총사업체수, 인구수, 월세가구 비율 등으로 이들 지표들은 0.87~0.63의 요인 적재값으로 주성분을 이루었으며 고유값은 10.74로 다른 요인에 비하여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다. 요인 1을 수용하는 주요 지표들이 근로자와 관련됨에 따라 요인 1을 “근로자 밀집”이라 명하였다. 요인 2의 주요지표는 전세가구 비율, 도시공원 비율, 공동주택 비율, 재정 자립도 등으로 이들 지표들은 0.80~0.50의 높은 요인 적재값으로 주성분을 이루었으며 고유값은 3.94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 2가 수용하는 주요지표들이 주택 및 쾌적성과 관련되어 요인 2를 “양호한 주거환경”이라 명하였다. 요인 3의 주요지표는 고용율, 경제활동 참가율, 자동차 등록대수, 출산률 등으로 이들 지표들은 0.90~0.57의 요인 적재값으로 주성분을 이루었으며 고유값은 1.79로 다른 요인에 비하여 보통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 3이 수용하는 주요지표들이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요인 3을 “지역경제 활성화”라 명하였다.

요인 4의 주요지표는 사회복지시설수로 요인 적재

〈표 5〉 지방 중소도시 지역특성 요인분석

지표	요인					
	1	2	3	4	5	6
	근로자 밀집	양호한 주거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수요 증가	교육거점 기능	의료환경 낙후
제조업체수	.868	.001	.099	-.222	.177	-.036
총사업체수	.814	.232	-.289	-.068	.265	.102
인구수	.779	.350	-.238	-.173	.295	.101
월세가구 비율	.728	.337	-.304	-.049	.103	-.097
하수도 공급률	.634	.265	-.562	.054	-.044	-.085
전세가구 비율	.382	.796	.005	.183	.125	.043
1인가구 비율	-.067	-.787	.116	.353	.242	-.016
도시공원 비율	-.077	.717	-.095	.124	.357	.206
공동주택 비율	.596	.708	-.230	-.134	.145	-.037
단독주택 비율	-.594	-.707	.244	.128	-.143	.036
지자체 공무원수(인구 천명당)	-.520	-.679	.209	.076	-.248	.064
노후주택 비율	-.366	-.662	-.166	.485	-.044	.073
재정 자립도	.548	.651	.222	-.306	.112	.036
도시공원 면적(m <sup>2</sup> )	.466	.497	-.181	-.284	.105	.330
고용률	-.157	.038	.902	.045	-.136	-.036
경제활동 참가율	-.087	.096	.898	-.073	-.154	-.019
자동차등록대수(1인당)	.022	-.233	.800	.217	-.033	.200
복지 예산율	.331	.459	-.638	.107	.215	-.107
출산율	-.280	.453	.569	-.418	.080	-.055
상수도 보급율	.478	.345	-.532	.034	-.170	-.138
사회복지시설수(인구 십만명당)	-.257	-.078	.061	.871	-.046	-.072
문화기반시설수(인구 십만명당)	-.209	-.177	.134	.142	-.784	-.028
학생수(교원 1인당)	.426	.077	-.147	.108	.652	-.231
도로포장율	-.137	-.087	.016	.014	-.148	.872
의료기관 병상수(인구 천명당)	-.203	-.386	-.258	.109	-.125	-.641
고유값	10.741	3.937	1.785	1.409	1.346	1.057
전체변량(%)	42.966	15.749	7.139	5.637	5.386	4.229
누적분산(%)	42.966	58.715	65.854	71.491	76.877	81.106

값은 0.87이며 고유값은 1.409로 다른 요인에 비하여 보통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 4가 수용하는 주요지표가 사회복지시설수요와 관련되어 요인 4를 “복지수요 증가”라 명하였다. 요인 5의 주요지표들은 학생수와 문화기반시설수로 이들 지표들은 0.65~-.078의 요인 적재값으로 주성분을 이루었으며 고유값은 1.35로 다른 요인에 비하여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 5가 수용하는 주요지표들이 교육기능과 관련되어 요인 5를

“교육 거점기능”이라 명하였다. 요인 6의 주요지표인 도로포장율의 요인 적재값(0.875)은 높으나 의료기관 병상수의 요인 적재값(-0.64)은 낮은 주성분을 이루었으며 고유값은 1.06로 다른 요인에 비하여 낮은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 6이 수용하는 지표들이 낮은 의료서비스와 관련되어 요인 6을 “의료환경 낙후”라 명하였다.

한편 도출된 요인들의 구체적인 특성 파악을 위한

〈표 6〉 지방 중소도시 특성

성분	최종 군집중심 값						도시특성
	요인 1 (근로자 밀집)	요인 2 (양호한 주거환경)	요인 3 (지역경제활성화)	요인 4 (복지수요증가)	요인 5 (교육거점기능)	요인 6 (의료환경낙후)	
군집 1	-0.28351	0.36156	-1.19135	0.19123	0.34047	0.12796	성장 정체
군집 2	1.00899	0.28080	0.44295	-0.81588	0.06642	0.26235	산업 선도
군집 3	-0.52548	-0.24351	0.39854	-0.22611	0.47740	-1.07576	지역 거점
군집 4	-0.23616	-0.38159	0.35528	0.73111	-0.73299	0.48975	인구 유출
분산분석							
F 값	5.296	1.151	8.947	4.980	2.923	5.091	
유의 확률	0.005	0.346	0.000	0.007	0.050	0.006	

군집분석 결과 〈표 6〉과 같이 6개의 요인 중 근로자 밀집,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수요 증가, 교육 거점기능, 의료환경 낙후가 군집간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5개의 요인 중 군집 1(유형 1)은 요인 5(교육 거점기능) 및 요인 4(복지수요 증가)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으나 요인 3(지역경제 활성화) 및 요인 1(근로자 밀집)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 군집 1의 도시를 성장 정체도시라 명하였다. 군집 2(유형 2)는 요인 1(근로자 밀집) 및 요인 3(지역경제 활성화)의 비중이 높고 요인 4(복지수요 증가)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 군집 2의 도시를 산업 선도도시라 명하였다.

군집 3(유형 3)은 요인 5(교육 거점기능)와 요인 3(지역경제 활성화)의 비중은 높으나 요인 1(근로자 밀집), 요인 4(복지수요 증가), 요인 6(의료환경 낙후)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 군집 3의 도시를 지역 거점도시라 명하였다. 군집 4(유형 4)는 요인 4(복지수요 증가)와 요인 6(의료환경 낙후)의 비중은 높으나 요인

1(근로자 밀집) 및 요인 5(교육 거점도시)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 군집 4의 도시를 인구 유출도시라 명하였다.

## 5. 지방 중소도시 1인 가구 분석

### 1) 연령분포

지방 중소도시 유형 및 1인 가구 연령분포가 1인 가구비율<sup>6)</sup>에 미치는 영향은 〈표 8〉과 같이 연령분포(D)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유형과 연령분포(T\*D) 조합도 중요하게 1인 가구비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 변화에 따른 1인 가구비율의 변화 관계는 〈표 9〉의 대비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1인 가구비율 변화는 20대 이하 Vs. 50대, 30대 Vs.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분포에서 중요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별 1인 가구비율 변화는 〈그림 2〉와 같이 모든 유형에서 60대 이상 연령대 비율이 가장 높으며 유형 1은 30대 및 40대 비율이 타 연령대 비율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형 2는 20대, 30대, 40대, 50대의 비율이 큰 차이 없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유형 3은 20대 이하의 비율이 타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 4는 50대 및 60대 이상 비율이 타 연령대 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 군집(유형)별 지방 중소도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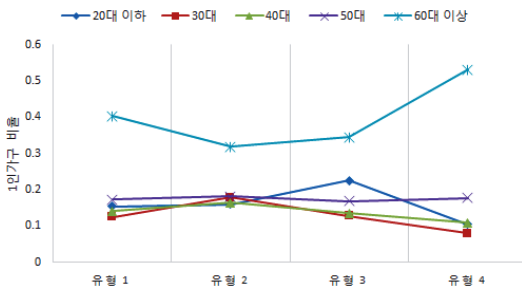
군집(유형)	도시명
성장정체도시	여수, 안동, 통영, 거제, 공주, 순천, 논산, 익산, 김천.
산업선도도시	아산, 당진, 구미, 양산, 광양, 서산, 사천, 원주
지역거점도시	진주, 경주, 충주, 군산, 목포, 춘천, 강릉, 경산
인구유출도시	상주, 영주, 밀양, 제천, 보령, 정읍, 영천

〈표 8〉 1인 가구 연령분포 분산분석

구분	F 값	P 값	관계
모형	46.284	0.000	
중소도시 유형(T)	0.008	0.999	비중요
연령분포(D)	190.474	0.000	중요
T*D	11.824	0.000	중요

〈표 9〉 연령분포 대비분석

연령분포 대비	평균차이	P 값	관계
20대 이하 Vs. 30대	0.033	0.005	중요
20대 이하 Vs. 40대	0.024	0.040	중요
20대 이하 Vs. 50대	-0.014	0.215	비중요
20대 이하 Vs. 60대 이상	-0.239	0.000	중요
30대 Vs. 40대	-0.009	0.435	비중요
30대 Vs. 50대	-0.048	0.000	중요
30대 Vs. 60대 이상	-0.272	0.000	중요
40대 Vs. 50대	-0.038	0.001	중요
40대 Vs. 60대 이상	-0.263	0.000	중요
50대 Vs. 60대 이상	-0.224	0.000	중요



〈그림 2〉 연령분포별 1인 가구비율

## 2) 혼인상태

지방 중소도시 유형 및 1인 가구 혼인상태가 1인 가구비율<sup>7)</sup> 미치는 영향은 〈표 10〉과 같이 혼인상태(M)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유형과 혼인상태(T\*M) 조합도 중요하게 1인 가구비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 변화에 따른 1인 가구비율의 변화 관계는 〈표 11〉의 대비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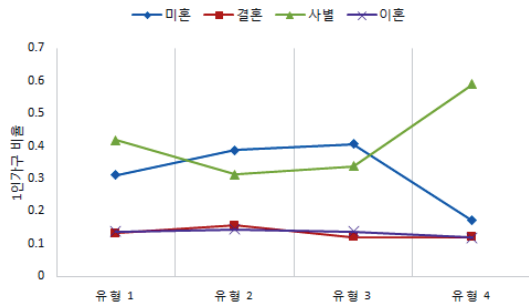
1인 가구비율 변화는 모든 유형에서 결혼 Vs. 이혼에 대한 1인 가구비율 변화에 큰 차이는 없으나 기타 혼인상태에서는 중요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표 10〉 1인 가구 혼인상태 분산분석

구분	F 값	P 값	관계
모형	43.082	0.000	
중소도시 유형(T)	0.000	1.000	비중요
혼인상태(M)	169.146	0.000	중요
T*M	15.947	0.000	중요

〈표 11〉 혼인상태 대비분석

혼인상태 대비	평균차이	P 값	관계
미혼 Vs. 결혼	0.190	0.000	중요
미혼 Vs. 사별	-0.085	0.000	중요
미혼 Vs. 이혼	0.186	0.000	중요
결혼 Vs. 사별	-0.275	0.000	중요
결혼 Vs. 이혼	-0.0040	0.807	비중요
사별 Vs. 이혼	-0.186	0.000	중요



〈그림 3〉 혼인상태별 1인 가구비율

다. 혼인상태별 1인 가구비율 변화는 〈그림 3〉과 같이 모든 유형에서 결혼 및 이혼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유형 1과 유형 4에서는 사별 비중이 타 유형보다 높고 유형 2와 유형 3에서는 미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교육수준

지방 중소도시 유형 및 1인 가구 교육수준이 1인 가구비율<sup>8)</sup>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표 12〉와 같이 교육수준(E)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유형과 교육수준(T\*E) 조합도 중요하게 1인 가구비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변화에 따른 1인 가구비율의 변화관계는 〈표 13〉의 대비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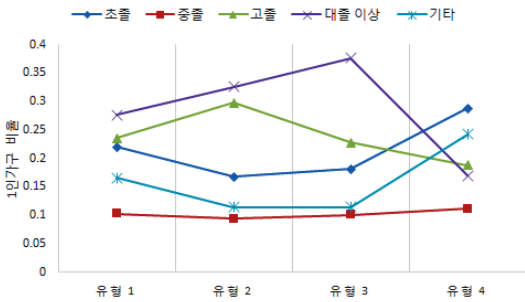


〈표 12〉 1인 가구 교육수준 분산분석

구분	F 값	P 값	관계
모형	23.763	0.000	
중소도시 유형(T)	0.000	1.000	비중요
교육수준(E)	69.677	0.000	중요
T*E	13.178	0.000	중요

〈표 13〉 교육수준 대비분석

교육수준 대비	평균차이	P 값	관계
초졸 Vs. 중졸	0.112	0.000	중요
초졸 Vs. 고졸	-0.023	0.061	비중요
초졸 Vs. 대졸	-0.072	0.000	중요
초졸 Vs. 기타	0.055	0.000	중요
중졸 Vs. 고졸	-0.135	0.000	중요
중졸 Vs. 대졸	-0.185	0.000	중요
중졸 Vs. 기타	-0.057	0.000	중요
고졸 Vs. 대졸	-0.050	0.000	중요
고졸 Vs. 기타	0.078	0.000	중요
대졸 Vs. 기타	0.128	0.000	중요



〈그림 4〉 교육수준별 1인 가구비율

1인 가구비율 변화는 초졸 Vs. 고졸을 제외하고 모든 교육수준에서 중요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분포별 1인 가구비율 변화는 〈그림 4〉와 같이 유형 1과 유형 2는 대졸 및 고졸 비율이 높고 유형 3은 대졸 비율이 타 유형보다 월등히 높으며 유형 4는 초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주택유형

지방 중소도시 유형 및 1인 가구 주택유형이 1인 가구비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표 14〉와 같이 주택유

형(H)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유형과 주택유형(T\*H) 조합도 중요하게 1인 가구비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 변화에 따른 1인 가구비율의 변화관계는 〈표 15〉의 대비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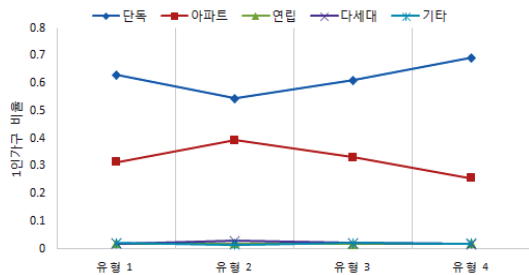
1인 가구비율 변화는 단독주택 Vs. 타 주택유형, 아파트 Vs. 타 주택유형이 중요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 1인 가구비율 변화는 그림 5와 같이 모든 유형에서 단독주택 비율이 높으며 다세대 및 연립주택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2는 아파트 비율이 타 유형에 비하여 가장 높고 단독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4는 단독

〈표 14〉 1인 가구 주택유형 분산분석

구분	F 값	P 값	관계
모형	172.140	0.000	
중소도시 유형(T)	0.000	1.000	비중요
주택유형(H)	800.899	0.000	중요
T*H	4.613	0.000	중요

〈표 15〉 주택유형 대비분석

주택유형 대비	평균차이	P 값	관계
단독 Vs. 아파트	0.297	0.000	중요
단독 Vs. 연립	0.602	0.000	중요
단독 Vs. 다세대	0.559	0.000	중요
단독 Vs. 기타	0.601	0.000	중요
아파트 Vs. 연립	0.305	0.000	중요
아파트 Vs. 다세대	0.302	0.000	중요
아파트 Vs. 기타	0.305	0.000	중요
연립 Vs. 다세대	-0.003	0.844	비중요
연립 Vs. 기타	0.000	0.978	비중요
다세대 Vs. 기타	0.002	0.866	비중요



〈그림 5〉 주택유형별 1인 가구비율

주택 비율이 타 유형에 비하여 가장 높고 아파트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주택점유

지방 중소도시 유형 및 1인 가구 주택점유가 1인 가구비율<sup>10)</sup>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표 16>과 같이 주택점유(O)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유형과 주택점유(T\*O) 조합도 중요하게 1인 가구비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점유 변화에 따른 1인 가구비율의 변화관계는 <표 17>의 대비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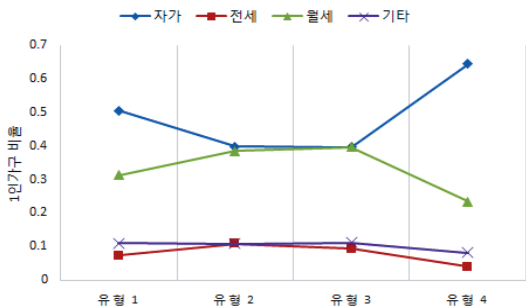
1인 가구비율 변화는 전세 Vs. 기타를 제외하고 모든 주택점유에서 중요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점유별 1인 가구비율 변화는 <그림 6>과 같이

<표 16> 1인 가구 주택점유 분산분석

구분	F 값	P 값	관계
모형	74.243	0.000	
중소도시 유형(T)	0.000	1.000	비중요
주택점유(O)	333.256	0.000	중요
T*O	13.962	0.000	중요

<표 17> 주택점유 대비분석

주택점유 대비	평균차이	P 값	관계
자가 Vs. 전세	0.407	0.000	
자가 Vs. 월세	0.154	0.000	중요
자가 Vs. 기타	0.383	0.000	중요
전세 Vs. 월세	-0.253	0.000	중요
전세 Vs. 기타	-0.024	0.109	비중요
월세 Vs. 기타	0.229	0.000	중요



<그림 6> 주택점유별 1인 가구비율

모든 유형에서 전세 및 기타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유형 1은 자가 및 월세 비율이 타 유형의 중간수준이다. 유형 2와 유형 3은 자기 비율이 타 유형에 비하여 낮고 월세 비율은 타 유형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유형 4는 자가 비율이 타 군집에 비하여 가장 높은 반면 월세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6) 사용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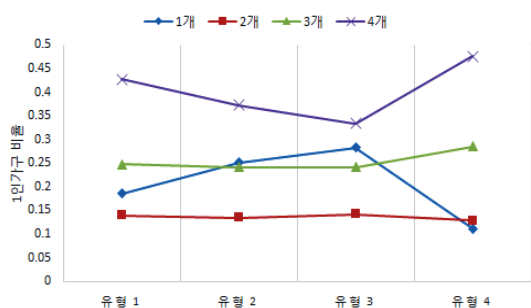
지방 중소도시 유형 및 1인 가구 사용방수가 1인 가구비율<sup>11)</sup>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표 18>과 같이 사용방수(U)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유형과 연령분포(T\*U) 조합도 중요하게 1인 가구비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방수 변화에 따른 1인 가구비율

<표 18> 1인 가구 사용방수 분산분석

구분	F 값	P 값	관계
모형	26.399	0.000	
중소도시 유형(T)	0.000	1.000	비중요
사용방수(U)	111.572	0.000	중요
T*U	7.183	0.000	중요

<표 19> 사용방수 대비분석

사용방수 대비	평균차이	P 값	관계
1개 Vs. 2개	0.069	0.000	
1개 Vs. 3개	-0.047	0.002	중요
1개 Vs. 4개	-0.195	0.000	중요
2개 Vs. 3개	-0.116	0.000	중요
2개 Vs. 4개	-0.264	0.000	중요
3개 Vs. 4개	-0.148	0.000	중요



<그림 7> 사용방수별 1인 가구비율

의 변화관계는 <표 19>의 대비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1인 가구비율 변화는 모든 사용방수에서 중요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방수별 1인 가구비율 변화는 <그림 7>과 같이 모든 유형에서 방 4개 이상 비율이 가장 높으며 유형 1은 방 4개 이상 및 방 3개 사용비율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유형 2는 방 1개 사용이 타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형 3은 방 1개 사용이 가장 높고 방 4개 이상 사용이 타 유형에 비하여 낮으며 유형 4는 방 4개 이상 및 방 3개 사용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결론

국내 주택수요가 다인 가구에서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되어 정부에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 등을 위한 주택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택정책이 대도시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 중소도시 1인 가구의 주거특성에 적합한 주택정책으로는 큰 한계가 있다.

지방 중소도시의 사회적·경제적·물리적 특성과 1인 가구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방 중소도시는 성장 정채도시, 산업 선도도시, 지역 거점도시, 인구 유출도시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됨에 따라 도시 유형별 1인 가구 특성에 적합한 차별적 주택정책이 요구된다.

성장 정채도시는 과거 지역산업 발달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도시였으나 최근 산업활동 위축으로 산업 근로자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한 도시다. 성장 정채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산업활동 근간이 되는 30-40대 연령대가 적으며 자가인 단독주택에서 방 3개 이상에 거주하는 장년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도시에서는 장년층 1인 가구 위주의 장기임대주택 및 셰어하우스 등의 주택공급과 함께 사회적 교류를 위한 단지형 1인 가구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

산업 선도도시는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도시다. 산업 선도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모든 연령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아파트 거주비

율이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미혼이며 방 1개에 월세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도시에서는 행복주택 등 청년층 주택공급과 함께 기존주택에 대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청·장년층 1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대처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지역 거점도시는 지역 거점기능과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감소한 도시다. 이들 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대졸 학력에 20대 이하의 미혼 가구가 많고 월세주택에서 방 1개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도시에서는 청년층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분양주택과 전월세 주택공급을 통해 청년층 1인 가구 주거안정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겠다.

인구 유출도시는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농촌적 주거 환경을 갖춘 도시다. 인구 유출도시에서의 1인 가구는 초졸 학력에 사별한 가구가 많고 자가인 단독주택에서 방 4개 이상에 거주하는 노령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도시에서는 고령자 복지주택 등 노령층 1인 가구 위주의 단지형 주택공급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분산된 주택거주 형태를 집단적 거주형태로 주거공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도입이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방 중소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지표 및 1인 가구지표에 한정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1인 가구 특성을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분석자료에 근거한 지방 중소도시 1인 가구 특성분석이 필요하다.

## 주

- 1) 지방자치법 제175조에서 중소도시는 광역시 및 대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로 정의함
- 2) 요인분석은 분석대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로 구성된 비교적 작은 수의 요인들을 추출함으로써 복잡한 현상을 몇 개로 유형화할 수 있는 통계 기법임
- 3) 군집분석은 분석대상의 유사성을 측정하여 유사성이 높은 대상 집단을 분류하고, 군집에 속한 객체들의 유사성과 서로 다른 군집에 속한 객체 간의 상이성을 규명하는 통계 기법임.

-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대상을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사용됨
- 4) 분산분석은 종속변수를 변화시키는 몇 개의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이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변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통계 기법임. 두 개 이상 집단들의 평균 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임
  - 5) Varimax rotation은 각각의 요인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회전시키는 직각회전의 하나로 요인행렬에서 각열의 요인 부하량을 제곱한 값의 분산을 최대화시켜 설명하는 방법임
  - 6) 연령분포별 1인 가구 수를 1인 가구 수로 나눈 비율
  - 7) 혼인상태별 1인 가구 수를 1인 가구 수로 나눈 비율
  - 8) 교육수준별 1인 가구 수를 1인 가구 수로 나눈 비율
  - 9) 주택유형별 1인 가구 수를 1인 가구 수로 나눈 비율
  - 10) 주택점유별 1인 가구 수를 1인 가구 수로 나눈 비율
  - 11) 사용방수별 1인 가구 수를 1인 가구 수로 나눈 비율

### 참고문헌

- 권세연·박환용, 2014, 서울시 1인가구의 주거환경만족 영향 요인 연구, 「한국주택학회」, 22(1), pp.77-104.
- 김영정·구화진, 2019, 「1인가구 주거공동체 및 사회적 관계 활성화 방안」,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옥연·문영기, 2009, 1인가구 주거실태분석: 서울시 인가구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7(2), pp.37-53.
- 김태주·안정근·정오락, 2015, 농어촌지역 1인가구 주택공급 방향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5(5), pp.1199-1207.
- 김보경, 2017, 「청년 1인가구 주거지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한양대학교.
- 김송이, 2013, 「1인 가구 주택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 박미선·강미나·임상연, 2017,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방향」, 세종: 국토연구원.
- 박미선·이재춘, 2018,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 방안」, 세종: 국토연구원.
- 변미리·신상영·조권중·박민진, 2008,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설동필·우윤석, 2012,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정책의 효율성 연구, 「한국정책연구」, 12(4), pp.197-222.
- 신현진, 2018,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및 주거상품에 관한 연구」, 제천: 세명대학교.
- 이상명, 2017, 저소득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정책연구」, 17(4), pp.1-30.
- 이재수·양재섭, 2012, 「서울시 1·2인 가구 유형별 특성에 따른 주택정책 방향」,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재순, 2012, 「1인가구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특성에 관한 연구」, 성남: 경원대학교.
- 정순희, 2019, 「미국의 1인가구 관련 정책동향」,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민희, 2013, 「도농간 1인가구의 특성차이에 관한 연구」, 대구: 계명대학교.
- 조성철, 2012, 「수도권 1인가구 주택수요전망과 주택공급분석」, 서울: 한성대학교.
- 조주현·김주원, 2010, 1인가구의 주택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16(4), pp.35-52.
- 통계청, 2019, 「국가통계포털-주제별통계」,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9, 「전국 도시인구 자료」, 대전: 통계청
- 게재신청 2020.05.12.  
심사일자 2020.06.04.  
게재확정 2020.06.19.
- 주저자, 교신저자: 안정근, 공동저자: 김동성·박철홍